

花果山の 장소성 연구

이서현*

【목 차】

1. 서론
2. 손오공의 귀환과 화과산
 - 1) 1차 귀환과 화과산: 我執
 - 2) 2차 귀환과 화과산: 我執의 팽창
 - 3) 3차 귀환과 화과산: 我執의 極大化
 - 4) 4차 귀환과 화과산: 法執, 空에의 집착
 - 5) 5차 귀환과 화과산: 法執, 分別心에의 집착
3. 결론

【초록】

서유기 속 많은 장소는 고도의 상징과 비유의 기법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화과산은 손오공이 나고 자란 곳이며, 손오공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는 장소이다. 장소와 장소 경험의 주체가 상호 작용하면 ‘장소성’, 즉 장소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화과산은 손오공의 탄생, 손오공의 다섯 차례의 귀환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본 연구는 손오공의 발전과정, 변모를 살펴보고 그와 상호작용하는 화과산의 모습, 의미 등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화과산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과 장소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 서유기, 화과산, 장소성, 아뢰야식, 무의식

*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연구원 (gawaii701@gmail.com)

1. 서론

『西遊記』는 당삼장이 西天으로 眞經을 가지러 가는 도중 겪게 되는 갖가지 모험을 그린 소설이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실제 당나라에서부터 인도까지의 현실 공간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현실을 훌쩍 뛰어넘어 요괴의 공간, 신들의 공간, 저승, 물속 등의 여러 공간을 환상 가득한 상상을 통하여 묘사하고 있다. 그중에서 화과산은 작품의 시작과 함께 나오는 장소인데, 손오공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소설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다.

에드워드 렐프의 장소론에 따르면 장소는 생활 세계로서의 장소이며, 거주한다는 것은 곧 장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장소와 장소 경험의 주체가 되는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장소의 정체성’이라고 개념화하였다.¹⁾ 본고에서는 화과산과 화과산이라는 장소 경험의 주체가 되는 손오공 사이의 상호작용, 손오공과 화과산의 관계, 화과산의 변화 등을 연구하면 화과산이 가지는 장소의 정체성, 즉 장소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착안에서 시작되었다.

花果山の 이름을 보면, 말 그대로 꽃[花]과 열매[果]의 산이다. 꽃이 원인이 되어서 열매라는 결과에 이른다. 원인과 결과는 세상이 흘러가는 보편적인 법칙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또 그에 다른 결과가 있다. 이런 원인과 결과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얹히면 바로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가 된다.

원인[花]과 결과[果]는 ‘나’라는 자아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나’라는 자아가 어떤 ‘결과’를 인식하면 ‘왜?’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원인이 된다. 인간은 ‘나’라는 자아를 중심으로 인과적 사고를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손오공은 이 원인과 결과의 산[花果山]에서 태어나고 자란다. 여섯 번이나 화과산을 떠나지만 다섯 차례 다시 화과산으로 돌아온다. 손오공이 한 차례 떠났다가 돌아올 때[귀환]마다 화과산이 장소로서 가지는 의미, 상징하는바, 손오공과 화과산의 상호관계 등에 변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고찰하기 위하여 손오공이 화과산으로 귀환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해 볼 것이다.

1) 이상희, 「Interactive Architecture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1.02, p.12.

2. 손오공의 귀환과 화과산

『서유기』는 세상이 시작되는 이야기로부터 소설을 시작한다. 盤古가 혼돈을 깨뜨린 후 천지개벽이 시작되면서 세상에 하늘, 땅, 시간, 불, 물, 돌, 흙 등과 함께 짐승, 인간이 생긴다. 그 후 세상은 네 개의 큰 대륙으로 나누어지는데, 화과산은 이 네 개의 대륙 중의 하나인 동승신주의 바다 바깥에 있는 큰 바다 가운데에 있는 산이다. 이 산은 열 대륙의 시조가 되는 산맥이며 삼신산의 뿌리가 되는 산이다.

『서유기』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그 가장 근원이 되는 곳에 생겨난 것이 바로 화과산이다. 불교 유심론에서는 자아와 세계의 근원을 阿賴耶識이라고 말한다. 아뢰야식은 제8식으로 무의식 또는 가장 근원적인 마음이다. 『서유기』 소설이 불교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²⁾을 참작하고 분석한다면, 새로운 세상 또는 새 생명 탄생의 근원이 화과산이며 이는 곧 세계의 근원이자 자아의 근원인 아뢰야식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다.

화과산의 꼭대기에 신령한 돌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돌이 해와 달과 감응하다가 태기가 생겨 돌로 된 알을 하나 낳는다. 그리고 바람이 이 돌 알을 깎아서 원숭이 모양이 되었고, 이 원숭이 모양의 돌이 오관을 갖추고 팔다리가 생기더니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이 돌 원숭이가 바로 손오공이다. 즉 화과산은 손오공이 태어난 고향이자, 손오공을 낳은 母體라고 할 수 있다.

화과산에서 태어난 이후 두 팔과 두 다리가 생겨 걷고 뛸 수 있게 된 돌 원숭이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다른 동물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돌 원숭이는 원숭이 무리와 함께 계곡에서 놀다가 그 계곡물의 시작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에 이르러보니 그곳에는 한줄기 높다란 폭포가 떨어지고 있었다. 돌 원숭이가 나서서 폭포를 뚫고 들어가 물의 源流를 찾아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수렴동이 숨겨져 있었다.

중간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화과산 보금자리, 수렴동 별천지’라고 새겨져 있어. 정말로 우리가 편히 살 수 있을 곳이야. 또 그 안은 넓어서 수천의 식구들이 들어갈 수 있어. 우리 모두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 하늘의 기운을 받는 것도 면할 수 있지.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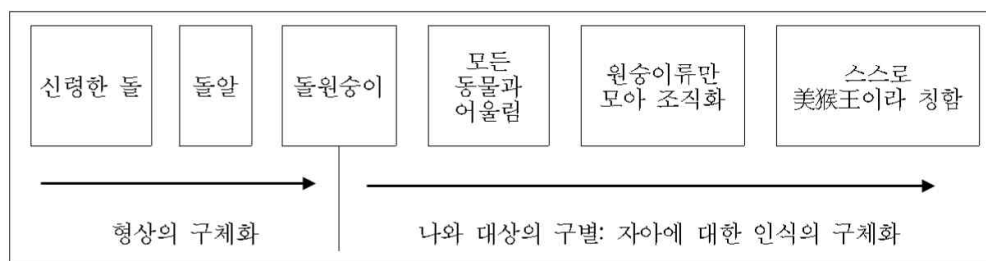
2) 서유기 이야기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해졌기 때문에 여러 사상과 여러 분파의 종교사상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서유기』의 큰 주제가 불교의 眞經을 구하러 가는 것이라는 점, 현장 일행이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즉 반야심경만 외우면 요괴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서유기가 불교를 근간으로 창작되었다고 판단한다.

3) 中间一块石碣上，镌着‘花果山福地，水帘洞洞天’。真个是我们安身之处。里面且是宽阔，容得千百口

수렴동은 대조적인 두 속성이 공존하는 장소이다. 동굴 입구는 폭포가 흐른다. 폭포는 물이다. 물은 고정된 모양을 가지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한다. 동굴 속은 꽃과 나무뿐만 아니라 돌솥, 돌로 된 부엌, 돌 접시, 돌 그릇, 돌침대, 돌결상 등⁴⁾ 돌로 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돌은 물과는 다르게, 고정된 모양을 가지며 움직임과 변화가 거의 없다.⁵⁾ 끊임없이 변화하는 바깥세상[폭포]과는 달리, 돌로 구성된 동굴 내부는 변화가 거의 없어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다.

화과산 수렴동이 가지는 이러한 공간적 특징을 인간의 뇌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접근하기 어려워져 최근에서야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와는 다르게 일정한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공간, 바로 무의식의 영역이다. 잠재 의식이나 아뢰야식이라고 불리는 이 영역은 뇌 구조상 의식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속하기 때문에 무의식적 정신 과정을 거친다.⁶⁾ 즉, 화과산 수렴동은 인간의 무의식 공간과 유사한 장소적 특성을 가진다.

무의식의 영역에서 ‘자아 인식’이 생겨나는 것처럼, 화과산 수렴동에서는 돌 원숭이의 자아상 구체화 과정이 일어난다. 돌덩이 → 돌 알 → 돌 원숭이, 동물 → 원숭이 → 뛰어난 원숭이로 자신에 관해 점점 더 구체적인 정보가 모이는 것이다.



老小. 我们都进去住, 也省得受老天之气. 『西遊記』(제1회)

- 4) 수렴동을 자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여성의 생리기능과 자궁 내의 안전함, 완벽함을 고려한 의견인 듯하다. 林中治先生講述, 『西遊記與唯識(一)生命的起源』, 大圓出版社, 1998년 11월
- 5) 강경구 교수는 『서유기와 마음관찰 여행』이라는 책에서 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돌 석(石) 자는 옛 석(昔) 자와 통한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며 이 자리에서 움직인 일이 없다. 우주를 가득 채운 큰마음도 그렇다. 둘째, 한자에서 돌 石은 부처 釋과 발음이 같아서 뜻이 통한다. 돌 가구는 써도 닳지 않는다. 그렇게 늘거나 줄지 않는 이것을 부처라 부르는 것이다. 부처를 특별한 것에 한정하면 거기 부처는 없다. 그래서 모든 살림살이가 다 돌 [石=釋] 인 것이다. 셋째, 돌은 판단중지의 상징이다. 현상을 대하되 의미화하지 않는다. 판단하고 의미화하면 전체성이 무너진다. 모든 형상에 대한 이원론적 판단이 중지된 자리에 원래의 큰마음이 밝게 드러난다. 동굴에 완벽하게 갖추어진 돌 가구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강경구, 『서유기와 마음관찰 여행』, 신아사, 2017.02, p.17
- 6) 레오나르드 블로디노프, 『“새로운” 무의식: 정신분석에서 뇌과학으로』, 까치글방, 2013.04, p.28.

자아 인식이란 대상(타인이나 외부환경)과 자신의 존재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처음에는 그저 ‘돌’이라는 구성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었지만, 점차 ‘원숭이’의 외형을 갖게 된다. 움직일 수 있게 된 후 처음에는 여러 동물과 함께 어울려 놀았지만, 나중에는 동물의 외형을 구별하여 자신과 닮은 꼴인 원숭이들 하고만 어울린다. 그 원숭이 무리 중에서도 자신의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점을 알게 되고 그 다름을 구별하기 위해 ‘美猴王’이라고 자칭하게 된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점차 나와 대상을 구별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을 ‘나’라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 ‘나’가 타인과 어떻게 다른지 끊임없이 구별·비교하여 ‘나’라고 하는 자아에 대한 개념을 만드는 과정이다. 즉 화과산 수렴동이라는 공간은 무의식의 영역이자 동시에 자기상을 구축하는 공간이다.

수렴동에서 미후왕은 원숭이 무리와 4~500년간 즐겁고 편안한 삶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죽음 극복을 위한 도를 닦기 위해 미후왕은 화과산을 떠난다.

화과산 수렴동의 상징의미는 손오공이 스승인 수보리 조사와 공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후왕이 갖은 고생 끝에 스승을 만나게 된 곳은 ‘靈臺⁷⁾方寸⁸⁾山’, ‘斜月三星⁹⁾洞’이다. 靈臺方寸山, 斜月三星洞 모두 마음[心]을 가리키는 말이다. 심장이나 마음은 각각 신체 기관을 지칭하거나 감정 따위가 생겨나는 곳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서유기』의 작가는 이 단어들을 장소화, 공간화하여 소설 배경으로 삽입하였다. 미후왕이 道를 닦기 위해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설정은 ‘마음에 道가 있다.’라는 서유기의 큰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후왕이 ‘마음’ 속으로 들어가 만난 스승은 須菩提祖師이다. 수보리존자는 석가모니의 십대제자 중 한 명으로 실존 인물이다. 수보리는 空에 대한 이해가 깊어 解空 第一로 불렸으며 금강경에서 空 사상을 설하는 부처님의 대화자로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서유기』 속의 스승 수보리는 실존 인물 수보리 존자의 이름에 걸맞게 미후왕에게 空에 관한 가르침을 준다. 스승이 미후왕을 가르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7) 靈臺者, 有持而不知其所持, 而不可持者也, 『莊子』(第23篇 庚桑楚)

8) 徐庶辭先主而指其心曰: 本欲與將軍共圖王霸之業者, 以此方寸之地也. 今已失老母, 寸亂矣. 『三國志·諸葛亮·傳』

9) 心の 破字.

1단계: 성과 이름을 정해주었다.

스승이 姓을 묻자 손오공이 “저는 성이 없습니다. [無性] 일생 성내지 않았습니니다. [一生無性]”이라고 말한다. 손오공의 대답 속 無性이라는 표현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성이 없다.’라는 뜻이다. 즉 손오공이 대답한 無性은 無自性, 손오공 자신의 본질, 본성이 없다는 뜻이 된다. 이에 수보리조사는 둘 원숭이에게 ‘孫’이라는 성과 ‘悟空’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성씨 ‘孫’은 ‘孫(원숭이 손)’字에서 ‘豸(개 건)’변을 떼어낸 글자이므로 원숭이였지만 동물적인 면[욕구, 충동, 본능]을 제거하고 극복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悟空’이란 이름은 글자 그대로 ‘空을 깨달으라, 일체 만물에 空性 이 있음을 깨우치라.’라는 의미이다. 스승은 문중의 열두 항렬 글자를 소개하는데, 廣·大·智·慧·眞·如·性·海·穎·悟·圓·覺의 열두 자이다. 이 항렬 글자들은 각각 광대지혜(廣大智慧, 크고 넓은 지혜), 진여성해(眞如性海, 진여의 성품이 大海처럼 넓고 깊음), 영오원각(穎悟圓覺, 홀륭하고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므로, 손오공이 불문에 들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2단계: 二門 밖으로 데려가 청소하고 손님을 맞는 예법을 교육하였다.

스승은 둘 원숭이를 이문 밖으로 가서 수행하도록 한다. 불교에서 ‘문(門, sk. dvara)’은 출입문이 아니라 학설, 분야, 가르침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一心二門이란 <대승기신론>의 핵심사상인데, 그 뜻은 한마음에 두 개의 문(분야, 가르침)이 있다는 뜻이며 그 두 개의 문은 해탈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心眞如門]과 현상의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心生滅門]이다. 사람들은 해탈의 삶을 추구하지만 현상세계가 없는 해탈은 없다. 해탈의 삶은 현상의 세계를 반드시 거쳐야 갈 수 있다. 그렇기에 스승은 먼저 둘 원숭이에게 사람들과 교화하게 하고 예법을 배우도록 한 것이다.

3단계: 스승이 신선들을 불러 모아 도를 설파한다.

이때 스승이 설파한 내용은 삼승의 가르침이다. 三乘은 세 가지 탈 것이라는 뜻으로, 중생을 실어 열반이란 언덕에 실어 나르는 세 가지 수레인 聲聞乘·緣覺乘·菩薩乘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 삼승은 대승불교 측에서 주장한 것으로, 부처가 음성으로 설한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성문승이라고 하고 스승에 의하지 않고 혼자 깨달음을 얻는 것을 연각승이라고 하며, 이 성문승과 연각승을 모두 소승이라고 말한다. 보살승은 개인의 깨달음과 열반뿐 아니라 중생과 함께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대승이라고 한다. 손오공은 이 내용을 듣고 스승의 말씀의 오묘한 경지까지 알아듣고 기뻐하며 춤까지 춘다.

4단계: 수수께끼를 내어 불러낸 후, 비밀스럽게 도의 근원을 설파하고 구결 전수하였다.

손오공이 설법의 오묘한 경지까지 알아들은 것을 본 스승은, 손오공의 머리를 세 번 때리고 뒷짐을 진 채 안으로 들어가더니, 제자들은 내팽개쳐둔 채 中門을 잠가버렸다. 이는 스승이 손오공에게 도를 전해주고자 수수께끼를 낸 것이다. 스승이 그를 세 번 때린 것은 3경이란 시간을 명심하란 것이고, 뒷짐을 지고 안으로 들어가 중문을 잠근 것은 후문으로 들어오면 은밀한 곳에서 도를 전해주겠노라는 뜻이다.

손오공이 수보리에게 법을 전수받는 이 장면은 중국 승려 혜능이 스승 오조 스님에게 법을 전수받는 장면과 유사하다. 혜능은 즉각적인 깨달음, 즉 頓悟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선불교 계통의 승려이다. 스승 오조 스님은 밤이 3경에 이르자 혜능을 방으로 불러 『금강경』을 설하였고, 혜능은 한 번 듣고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바로 깨달아 그날 밤에 법을 전해 받았다.¹⁰⁾

혜능과 손오공의 경우 모두 스승이 매우 비밀스럽게 제자에게 법을 전하고 있다. 육조단경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한 번 듣고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바로 깨달아 그날 밤에 법을 전해 받았는데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하였습시다. ……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전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에게서 도를 전수받은 손오공은 밤마다 혼자 수련을 하여 익힌다.

5단계: 변신술을 가르쳤다.

사물의 외형을 비평하는 公案批語(석가모니의 말씀과 거동, 그리고 그 비유)와 外相包皮(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를 강의하던 중 손오공을 불러 72종의 변화를 하는 지살수를 가르쳤다. 외형이 자유자재로 변한다는 것은 외형이 고정된 형상을 가지지 않으며 미추를 초월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는 곧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상이 공하다는 진리를 깨우쳤다는 뜻이 된다.

6단계: 십만 팔천 리를 날아갈 수 있는 근두운 법을 가르쳤다.

스승은 하루 동안 세상을 두루 돌 수 있는 술법을 가르치며, ‘어렵다.’라고 말하는 손오공에게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는 법,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어려울 게 뭐 있겠느냐?”고 말한다. 이는 모든 것은 마음에 그 해답이 있다는 뜻이다. 이 5단계와 6

10) 강경구, 『평설 육조단경』, 세창출판사, 2020.6, p.47.

단계의 과정은 『서유기』 소설에 환상적 이미지를 더하고 있으며 이 단계를 통해 손오공은 형체와 거리의 제약을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손오공은 수보리 조사와의 공부를 통해 불교에 입문하고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1) 1차 귀환과 화과산: 我執

손오공은 수보리로부터 도를 전수받아 만물의 空性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이 깨우침은 부처의 경지가 아닌 術法을 바탕으로 하는, 체험적 깨우침이었다. 그래서 손오공은 사람들 앞에서 소나무로 변신하며 자신의 재주를 뽐내는 모습을 보인다. 진정한 ‘空’을 깨우쳤다면 남들에게 변신술을 자랑하고 깨우침의 체험을 드러내 보이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정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변신술, 도술 등의 여러 가지 술법만을 익혔기 때문에 가진 재주를 드러내고 남들보다 우월함을 뽐내고 싶었던 것이다. 스승은 그런 손오공을 꿰뚫어 보고 반드시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며 내쫓는다.

쫓겨나서 눈물을 흘리는 손오공에게 수보리 조사는 “네가 어디서 왔더냐? 그곳으로 되돌아가면 될 게 아니냐?” 하자, 그 순간 뭔가를 펴뜩 깨달은 손오공이 “전 동승 신주 오래국의 화과산 수렴동에서 왔지요”라고 답한다. 마음속으로 들어가 道를 깨우친 손오공은,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이자 집,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해준 공간인 화과산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1차 귀환]

돌아온 화과산 풍경은 돌 원숭이가 떠날 때와는 다르게 황량하였다. 원숭이 울음 소리가 처량하면서도 애절하게 울려 퍼지고 온갖 가재도구는 물론, 많은 수의 줄개 원숭이도 사라진 상태였다. 손오공이 없는 사이 포악한 요괴가 나타나 수렴동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조사에게서 선술을 배워 불로장생하게 되었고 많은 술법을 익혔지만, 손오공은 아직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깨달음[般若]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그는 화과산의 황폐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였다. 일체 만물에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空으로써 화과산의 황폐함을 받아들였다면 드러난 현상에 집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손오공은 화과산의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비록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지만, 자신의 세계까지 空으로 이해하는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손오공에게 화과산은 깨달음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공간이다.

화과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괴의 이름은 混世魔王이다. 말 그대로 세상, 즉 오

공의 세계인 화과산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괴이다. 혼세마왕은 수렴동을 차지하려고 찾아와 수렴동에 있는 물건들과 어린 원숭이들을 가져간다.

자신의 마음속 根源을 파악하고 도를 구하고 돌아왔는데 어째서 자아가 황폐해져 있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답으로 강경구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손오공은 수보리 존자에게서 큰마음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하였는데 어찌다 다시 자아를 내세우는 마왕이 된 것일까? 하나 됨의 경험 주체로서 개인적 나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화과산은 깨달음에 대한 자부심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자아 왕국이 된다.¹¹⁾

혼세마왕을 물리친 후 손오공은 道가 아닌 ‘힘’에 집착한다. 화과산을 지키기 위해 부하 원숭이들로써 군사를 만들고 훈련을 시켰으며 진지를 구축했다. 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에는 무기가 부족하다고 여겨서 오래국으로 가서 사람들의 무기를 훔쳐 온다. 인간들의 무기로 무장한 부하 원숭이들을 한데 집결시켜 무장하게 하니 근처 짐승과 요괴들이 두려워하며 美猴王에게 복종하였다.

화과산을 철통같은 요새로 만든 후, 손오공은 자신을 무장하기 위해 동해 용왕을 협박하여 여의금고봉[如意金箍]을 빼앗는다. 이 무기는 이름 그대로 如意, 뜻과 마음에 따라 길이와 굵기가 변화하는 쇳덩어리이다. 손오공은 스승에게서 마음에 있는 2개의 문, 즉 해탈의 삶으로 통하는 문과 현상계로 통하는 문이 있음을 배웠다. 하지만 손오공은 해탈의 삶으로 가는 마음이 아니라 현상세계로 통하는 마음으로써 이 여의금고봉을 움직인다. 현상세계로 통하는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손오공은 또 다른 자신인 화과산의 안전에 집착하고 더 강한 자신에게 집착하게 된 것이다.

손오공은 ‘나의’ 화과산을 지키고자 하였으며, 더 강한 ‘나’가 되기 위해 무기를 강탈했다. ‘나’에 관한 집착은 육체를 꾸미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어진다. 손오공은 동해 용왕에게 갑옷, 투구, 신발까지 강탈하여 자신을 화려하게 꾸민다. 깨달음을 통해 만물에 空性이 있음을 깨달았지만 자기 자신의 육체, 자아에 관한 집착을 놓지 못하였다. 손오공의 육체에 관한 집착은 불멸의 삶에 대한 집착으로 발전한다. 손오공은 꿈에서 저승으로 가서 생사부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지움으로써 죽지 않는 육체를 추구한다.

화과산에 있던 손오공이 저승으로 가는 수단은 ‘꿈’이다. 꿈은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추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꿈은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구나 소망, 갈등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시각적 자극이 쏟아지므로

11) 강경구, 『서유기와 마음관찰 여행』, 신아사, 2017.02.

주의하는 몇 가지 사물만 지각되지만, 눈을 감거나 꿈을 꿀 때는 감각 입력이 차단되어 시각 기억을 불러내는 데 방해가 없다. 그래서 꿈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장면이 사라지는 단절이 없어 꿈은 유난히 생생한 의식이 된다.¹²⁾ 손오공을 꿈에서 저승에 다녀오지만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꿈속 세계와 시간적·논리적인 단절 없이 이어진다. 꿈속에서 생사부의 이름을 지우고 돌아왔는데 이 사실이 꿈에서 깬 후에도 적용이 된다. 이로써 손오공의 터전인 화과산은 시간적 질서를 갖추고 있는 각성된 현실 세계라기보다는 손오공의 변신술과 근두운 법과 더불어 환상적인 공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손오공은 ‘황량해져 버린 화과산’을 보고 분노의 감정으로 마음을 움직인다. 화과산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힘을 확장시켜 화과산을 강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손오공은 점점 더 ‘강한 나 자신(깨달은 나 자신)’을 원하게 되었고 또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였다.

2) 2차 귀환과 화과산: 我執의 팽창

저승과 용궁을 소란스럽게 한 손오공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논의하던 天界에서는, 그를 벌하기보다는 적당한 벼슬을 주어 달래기로 한다. 태백금성을 따라 하늘로 가게 된 손오공은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른다. 비록 하늘 세계의 예의범절을 모르긴 했지만, 주위 신하들의 말에 따라 옥황상제에게 꿇어 엎드려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弼馬溫이라는 말을 돌보는 관직을 맡은 손오공은 열심히 일하였고 그 덕에 천마들은 날이 갈수록 토실토실 살이 찼다. 하지만 보름 남짓 지난 어느 날 손오공은 필마온이라는 벼슬이 품계조차 없는 말단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그는 화를 내며, “이 손 어르신이 화과산에서는 대왕님, 조상님으로 불렸는데…… 말 돌보는 건 후배나 종들에게 맡기는 비천한 일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¹³⁾ 하며 화를 내고는 화과산으로 돌아간다. [2차 귀환]

화과산으로 돌아온 손오공은 옥황상제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표현한다.

옥황상제가 사람을 쓸 줄 모르고 내 생김새만 보더니 무슨 필마온인가 하는 자리에 임명하는 거야.

옥황상제가 현자를 알잡아 보고, 나를 무슨 필마온이라는 자리에 앉혔지!¹⁴⁾

12) 박문호, 『박문호 박사의 뇌 과학공부』, 김영사, 2017.12, pp.440-441.

13) 老孫在那花果山稱王稱祖, ……養馬者, 乃後生小輩下賤之役, 豈是待我的? 『西遊記』(제4회)

14) 那玉帝不會用人, 他見老孫這般模樣, 封我做個甚麼弼馬溫, ……玉帝輕賢, 封我做個甚麼弼馬溫. 『西遊記』(제4회)

옥황상제가 자신에게 하급 관직을 준 이유는, 자신이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옥황상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여긴다. 손오공은 자신의 실체가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齊天大聖을 맡으셔도 될 것이라는 아부를 들은 손오공은 이 관직이야말로 자신의 위대하고 훌륭한 실체를 드러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제천대성’이라는 호칭은 ‘대단한 자아’가 실재한다는 손오공의 믿음이다.

그래서 그는 옥황상제에게 ‘제천대성’이라는 관직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한다. 옥황상제는 이번에도 손오공을 벌하지 않고, ‘이름은 있되 봉록을 주지 않는 제천대성’이라는 관직을 내리기로 한다. 태백금성이 그 뜻을 전하러 화과산으로 오자 손오공은 다음과 같이 그를 맞이한다.

제천대성은 즉시 원숭이들을 이끌고 높은 관을 쓰고, 갑옷을 입고, 또 갑옷 위에는 자황포를 걸치고, 보운리를 신고 급히 동굴 밖으로 나왔다.¹⁵⁾

하늘 세계에서 확인했던 미미한 자신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 손오공은 갖가지의 복들-높은 관·갑옷·자황포·보운리-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다. 이제 손오공은 ‘나’와 관련되어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화려하게 만드는 데 집착한다. ‘손오공과 관련된 모든 것’, 이것은 곧 손오공의 자아라고 부를 수 있다. 19세기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 한 인간의 ‘자아’는 자기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총합이다. 자신의 육체와 영적인 힘은 물론이고 옷, 집, 아내, 아이들, 조상들, 친구들, 주위의 평판, 직책, 소유한 땅과 가축, 요트, 은행 계좌까지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 이것들이 번지르르하고 풍요로우면 승리감을 느끼고, 보잘 것없고 초라하면 버림받은 느낌을 갖게 된다.”¹⁶⁾라고 하였다. 태백금성을 맞이하는 손오공의 모습에서, 자아를 우월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욕망을 읽을 수 있다.

손오공이 욕심내는 제천대성은 ‘이름만 있고[有名], 실체가 없는[無實]’ 이상한 관직이다. ‘有名無實’은 이름만 있고 영원한[무상하지 않은] 실체가 없다는 말이며, 이는 곧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다는 空 사상과 연결된다. 즉, 손오공이 헛된 공[제천대성, 유명무실] 사상에 집착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늘 세계에서 돌아온 후의 화과산은 손오공에게 있어 ‘우월한 자아’가 있다고 착각할 수 있게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화과산에는 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부하들이 있으며, 그에게 복종하는 72개 동굴의 요괴들이 있고, 그와 즐거움을 함께 나

15) 大聖即帶引群猴，頂冠貫甲，甲上罩了赭黃袍，足踏雲履，急出洞門。『西遊記』(제4회)

16) 조지프 르두, 『시넵스와 자아』, 소소출판, 2005.10.

늘 여섯 마왕이 있다. 비록 하늘 세계에서 자신의 존재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화과산으로 돌아옴으로써 그 기억을 부정하고 자신을 속이며 거짓된 자아 [제천대성]의 허상을 세우게 된다.

3) 3차 귀환과 화과산: 我執의 極大化

천계로 올라간 손오공은 흡족하다. 자신이 세운 거짓된 자아가 ‘실체’를 가진 실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천대성의 품계 등급이나 녹봉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벼슬의 실체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자아가 위대하다고 믿으며 한가로운 나날을 보낸다. 손오공이 또다시 사고를 칠까 걱정한 옥황상제는 손오공에게 반도원을 관리하는 일을 맡긴다. 반도 복숭아를 먹으면 수명이 천지일월과 같아질 수 있다는 토지신의 말에 손오공은 놀러 다니는 일도 그만두고 반도에 집중한다. 복숭아가 탐스럽게 익은 것을 확인하고는 몰래 반도를 실컷 훔쳐 먹는다. 반도 복숭아는 도교 신앙에 자주 등장하는 과일이며, 이 반도를 먹으면 신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不死의 음식이다. 이 반도 복숭아에 대한 손오공의 탐욕은 불사의 육체에 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

서왕모의 반도대회에 초대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손오공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신은 제천대성이라는 위대한 실체인데 서왕모가 반도대회에 초대하지 않았을 리 없기 때문이다. 손오공은 자신이 세운 헛된 자아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서왕모의 반도대회를 망쳐버리고 화과산으로 도망쳐, 부하 원숭이들을 모아 반도대회를 흉내 낸 仙酒會를 열었다. [3차귀환]

불사의 육체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저승에 가서 생사부의 이름을 지우고 오는 꿈 이야기와 반도대회에 초대받지 못해서 생긴 불만족을 화과산에서의 선주회로 충족하는 이야기는 프로이트의 쾌락 원리로서 설명해 볼 수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자아(Ego), 초자아(Superego), 원본능(id)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중에서 원본능은 무의식 기능의 중요한 부분이며, 모든 심리적 기능의 에너지원이다. 이 원본능은 스스로 본능적 욕동을 지연시키거나 수정할 수 없다.¹⁷⁾ 손오공은 깨달음을 얻은 후 자아가 위대하고 훌륭하다는 헛된 자아상을 내세웠고, 그 자아상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현실과 욕망과의 갈등 사이에서 원본능(id)은 어떻게든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므로, 꿈이나 공상 속에서도 만족을 얻으려 하는 쾌락 원리를 따른다. 그래서 꿈을 통해 생사부 이름을 지워 불사의 욕망을 채

17) 최영민,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쉽게 쓴 정신분석이론』, 학지사, 2011.09.

우고, 화과산의 작은 원숭이들을 모아 거짓 반도대회를 여는 것으로 제천대성의 이름에 부합하는 자아가 실재한다고 믿는다.

즉, ‘하늘 세계’와 ‘화과산’은 손오공에게 대조적인 의미 공간이다. 하늘 세계는 자신의 자아가 그저 空性을 가진 미미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필마온 관직을 받았었고, 제천대성이라는 이름뿐인 호칭으로 불렸다. 하지만 화과산은 이러한 현실을 속이고 숨겨진 내면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이다. 하늘 세계에서 손오공의 존재가 필마온 정도에 그친다는 현실을 알게 된 후에는 화과산으로 돌아와서 제천대성이라는 가상의 자아를 세워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켰고, 서왕모의 반도대회에 초대되지 않았을 때는 화과산으로 돌아와 가상의 반도대회를 열었다.

사실 인간의 자아는 과거 경험 기억을 지속적으로 인출하면서 형성되는 자전적 기억이다.¹⁸⁾ 즉 ‘나’라고 부를 만한 실체가 있거나 ‘나를 중심으로 일련의 사건들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뇌’가 대상(타인이나 외부환경)으로부터 나를 구별해내고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기억 중에서 인상 깊게 각인되는 일련의 기억을 모은 것이 바로 자아이다.

즉 손오공의 자아가, ‘깨달음을 얻은 나는 제천대성의 칭호에 걸맞는 위대한 존재이다.’라고 여기는 것은 정말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손오공의 자아가 그렇게 기억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자아의 헛된 기억을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만드는 장소가 바로 화과산이다. 이제 화과산은 손오공의 자아가 자신의 욕망 세계를 현실인 것처럼 구현하는 영화 세트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자아상은 매우 강력하여 쉽게 없애지 못한다. 『서유기』에서는 이를, 하늘 세계에서 십만 군사를 내려보내지만 쉽사리 화과산의 손오공을 물리치지 못하는 장면으로 상징적 묘사를 하고 있다. 하늘 군사와 손오공의 전투는 주로 화과산에서 벌어지는데, 이는 거짓 자아를 만들어내는 화과산이 무너져야 거짓 자아상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버티던 손오공은 결국 하늘신들에게 패하고 하늘 세계로 끌려간 후 석가여래에 의해 오행산 아래에서 500년 동안 깔리는 벌을 받게 된다.

4) 4차 귀환과 화과산: 法執, 空에의 집착

손오공이 4번째로 화과산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당삼장에 의해 파문당하기 때문이다. 『서유기』 제27회에서 唐僧 일행이 白虎嶺을 지날 때, 이곳에 사는 요괴인 白骨精이 삼장의 고기를 먹기 위해 세 차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나타난다. 요괴는 미

18) 박문호, 『박문호 박사의 뇌 과학공부』, 김영사, 2017.12, p.325.

모의 젊은 여인·젊은 여인의 노모·젊은 여인의 아버지로 변신하여 나타나지만, 변변이 손오공에게 그 실체를 간파당한다. 백골정은 신통력이 대단하지도 않고 비중도 크지 않은 요괴이지만 당삼장이 손오공을 쫓아내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손오공이 취정단에게서 쫓겨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요괴의 실체는 白骨이다. 인간은 각기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죽고 나면 결국 백골만 남는다. 손오공은 요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白骨임을 꿰뚫어 본다. 반대로 저팔계는 요괴가 드러내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그것이 실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 두 관점은 서로 대립하여 갈등의 원인이 된다.

시각을 통해 색깔과 형체를 분별하여 인식하게 되는 ‘육체’는 불교의 色을 대표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불교의 諸行無常[세상의 모든 물질과 현상은 고정불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의 관념에 따르면 이 육신은 결국 썩어 부패한 후 백골이 되고 만다. 그리고 이것은 곧 空의 개념이다. 손오공은 모든 육신을 백골이라고 보며 드러난 형상[色]을 부정하여 때려죽인다. 즉, 손오공은 空만을 추구한다. 이에 비해 저팔계는 과도하게 色에 집착한다. 스스로 음식과 여인에 집착할뿐더러 모양을 바꾸어 나타나는 백골정에게 거듭 속게 된다. 그런 점에서 色을 아예 허무로 인식하는 손오공과 色에 집착하는 저팔계 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 둘의 갈등 사이를 오가던 당삼장은 저팔계의 이간질을 믿고 손오공을 쫓아내게 된다. [4차 귀환]

삼장에게 쫓겨난 후 돌아온 화과산의 모습은 이전보다 황폐한 모습이었다. 현성이랑신이 불을 지른 탓에 꽃도 열매도 없는 데다 사냥꾼들이 매와 사냥개를 이끌고 수시로 화과산을 찾아와 원숭이들을 사냥했다. 그 때문에 47,000마리나 되던 원숭이 무리는 다 없어지고 겨우 천 마리의 원숭이만 남아 있었다.

사냥꾼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화과산을 사냥한다. 여기서 사냥꾼은, 空을 추구하는 손오공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외적 자극을 상징한다. 수행자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주체는 인간의 욕망이며 色이다. 사냥꾼들이 화과산으로 공격해오는 것을 보고 손오공은 분노가 치밀어 사냥꾼들을 모조리 말살했다. 空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어떠한 色의 침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손오공의 내면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손오공은 사냥꾼을 모조리 없앤 후 그들의 깃발들을 찢어서 하나로 꿰매 알록달록한 깃발을 만든 후 그 위에 『重修花果山, 復整水簾洞, 齊天大聖』라고 써서 동굴 밖에 걸어둔다. 사냥꾼들의 잡다한 색깔의 깃발은 각양각색의 色을 상징한다. 손오공은 그 色色의 깃발들을 하나의 깃발[空]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화과산은 모든 것을 공으로 이해하는 손오공의 세계이다. 서천으로 가는 길은, 오소선사가 전수해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의 ‘色卽是空, 空卽是色’의 구절처럼 色과 空을 함께 이해하고 깨우치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다. 하지만 손오공은 오직 色卽是空만을 추구하고 空卽是色을 부

정하였으므로 서천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나로 만들어 버린 깃발에 쓰인 글귀처럼 손오공은 다시 화과산에서 제천대성의 자아를 재건한다. 그리고 손오공은 다시 요괴가 된다.

취경단도 손오공을 내쫓은 후 문제에 직면한다. 요괴가 당삼장의 모습을 호랑이로 바꾸었고, 용마는 부상을 입었으며, 사오정은 요괴에게 붙잡혔다. 당삼장을 구하기 위해 용마는 저팔계에게 화과산으로 가서 손오공을 데려오라고 한다. 그리하여 화과산이라는 '空'의 공간에 '色'을 대표하는 인물인 저팔계가 들어온다. 손오공은 그 존재를 바로 알아차린다. 같이 돌아가자는 저팔계의 말을 뒤로한 채, 손오공은 저팔계에게 화과산의 묘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경치를 구경시켜준다. 화과산을 둘러본 저팔계는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진다. '色'을 대표하는 저팔계가 '空'의 세계를 맛보고 희열을 느끼는 부분이다. 저팔계는 곧 취경단에게 돌아갈 것을 제의하지만 손오공은 단칼에 거절한다. 손오공은 당삼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저팔계의 말을 믿지 않았다. 뒤돌아서서 욕을 하고서는 욕을 하지 않았다는 말도 믿지 않았으며 당삼장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말은 더더욱 믿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손오공은 저팔계[色]의 말을 믿지 않고 부정한다. 하지만 취경단이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과 요괴가 자신을 욕했다는 저팔계의 거짓말은 믿고서, 화과산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손오공이 저팔계의 말을 일부나마 믿는 부분에서 '色'을 무조건 배척하던 모습에서 '色'을 조금이나마 받아들이게 된 손오공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모든 '色'을 부정하는 손오공에게 있어서 화과산이란 '空'의 세계이며, '空'을 깨달은 자아의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空만이 진리'라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하지만 손오공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空'에 치우친 요괴의 모습이 아니다. “이 손 어르신이 몸은 수렴동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경전을 얻으러 가는 스님을 따르고 있어.”¹⁹⁾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손오공은 참된 진리와 깨달음을 구하고 있다.

5) 5차 귀환과 화과산: 法執, 分別心에의 집착

서천으로 가는 도중에 노상강도들이 나타나 돈을 요구하자, 손오공은 여의봉을 휘둘러 강도 2명의 머리를 때려죽인다. 손오공은 죽은 강도들을 ‘자고 있다[睡覺]’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고 있다[睡覺]’는 ‘깨어있지 않다[不覺]’라는 의미이고, 불교에서 깨어있음[覺]은 곧 깨달음을 상징한다. 즉 손오공이 강도를 무참하게 죽인 것은 ‘깨닫지 못함’을 부정하는 손오공의 마음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손오공은 여전히

19) 老孫身回水簾洞, 心逐取經僧. 『西遊記』(제31회)

‘깨달음’과 ‘空’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로 삼장과 불화가 생기지만, 손오공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 하루를 묵어갈 수 있게 잠자리를 제공해 준 楊 노인의 아들이 도둑질, 강도질, 살인 방화를 저지른다는 얘기를 듣고 손오공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게 못되고 음탕하고 사악한 짓을 일삼는 자식은 부모까지 해를 입힐 것이니 죽여야 합니다.” 손오공의 사고방식은 매우 이분법적이다. 못되고 음탕하고 사악한 자는 善이 아니므로 惡이다. 결국 손오공은 양 노인 아들의 목을 베어버린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삼장은 크게 노하여 손오공을 쫓아내어 버린다. 양 노인의 아들은 악인이지만, 삼장의 눈에는 덕을 베푼 여준 노인의 자식이었으며 소중한 생명이었다. 그 악인은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남편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은 악인이지만 선해질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손오공은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쫓겨난 손오공은 화과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관음보살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저 스님은 배은망덕하게도 한낱 善緣에 미혹되어 시비를 가릴 줄 모릅니다.²⁰⁾

손오공은 당삼장이 善惡과 是非를 제대로 분별할 줄 모른다고 비난한다. 일반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分別’이라는 용어는 긍정적인 단어로 쓰이지만, 불교에서는 분별심으로 인해 번뇌가 일어난다고 말한다. 是非, 黑白, 美醜, 色空 등 만물을 이원적 사고로 나누어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분별심이며 이로 인해 ‘좋고 나쁨’ 또는 ‘사랑과 미움’ 등의 감정이 일어나므로 번뇌와 고통이 시작되게 된다.

손오공의 분별심으로 인해 취경단이 불화하게 되자, 진짜와 똑같은 가짜 손오공이 생겨난다. 이는 善惡·空色을 분별하는 손오공의 마음이 외적 형상으로 드러난 부분이다. 가짜 손오공 요괴는 삼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부님, 손 어른신이 없으면 물 한 모금도 못 드시는군요……제가 없으면 사부님은 서천으로 못 가십니다……이렇게 나를 업신여기다니.²¹⁾

가짜 손오공은 취경단 중에서 오직 손오공 자신만이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齊天大聖’으로서의 손오공의 모습만을 갖추고 있다. 손오공과 거의 같아 보이지만 손오공이 아니다. 가짜 손오공은 삼장의 붓짐을 훔쳐 오고 가짜 당삼장과 가짜 취경단까지 만들었다. 이제 화과산

20) 那長老背義忘恩, 直迷了一片善緣, 更不察皂白之苦. 『西遊記』(제57회)

21) 師父, 沒有老孫, 你連水也不能夠哩. ……無我你去不得西天也. ……十分賤我. 『西遊記』(제58회)

은 似而非의 공간이다. 손오공은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가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화과산으로 찾아가 가짜 손오공과 대면한다. [5차 귀환]

진짜 손오공과 가짜 손오공은 외모,神通력 등 많은 것이 똑같았다. 손오공은 관음보살, 하늘신과 목차, 조요경, 삼장법사를 통해 진짜와 가짜를 구별[分別]해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었다. 천계에 속해 있는 인물들과 당삼장은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석가여래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게 되는데, 석가여래는 다음과 같이 설법을 하고 있었다.

존재하지 않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음 가운데 없다. 色相에 집착하지 않음 가운데 색상을 알게 되고 공허하지 않음 가운데 공허함을 깨닫는다. 존재함이 아닌 것이 존재가 되고 없음이 아닌 것이 색상이 되고 공허함이 아닌 것이 공허함이 된다. 공허함은 바로 그런 공허함이며 색상은 바로 그런 색상이다. 색상에는 정해진 색상이 없으니 색상이 바로 공허함이다. 공허함에는 정해진 공허함이 없으니 공허함이 바로 색상이다. 공허함이 공허하지 않음을 알고 색상이 눈을 미혹하는 색상이 아님을 알라. 겉으로 드러나 명분의 실체를 환히 알면 비로소 오묘한 깨달음의 소리를 이해하게 되리라.²²⁾

이 설법에는 不有와 有, 不無와 無, 非色과 色 등의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들로 가득하다. 不, 非와 같은 부정어를 사용하여 반대어를 늘어놓은 것 같지만 그 어떤 개념도 양분할 수 없다. 분별심이 일어나는 것은 相에 집착하여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와 가짜 손오공은 여래 앞에서도 이를 깨우치지 못하고 正과 邪를 ‘분별’해달라고 말한다. 석가여래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기에 가짜 손오공의 정체가 六耳獼猴라는 것을 밝혀낸다.

내가 보니 가짜 손오공은 귀가 여섯인 미후다. 이 원숭이는 한 곳에 서 있으면서도 천 리 밖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 있으며, 보통 인간들이 하는 말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놈을 일컬어 소식을 잘 듣고 이치를 잘 살피며, 전후 사정을 알아 만물에 환하다고 한 것이니라. 진짜 손오공과 모습도 목소리도 같은 저놈은 여섯 귀의 미후다.²³⁾

22) 不有中, 有, 不無中, 無, 非色, 色, 非空, 空. 非有, 有, 非無, 無, 非色, 色, 非空, 空. 空即是空, 色即是色, 色無定色, 色即是空. 空無定空, 空即是色. 知空不空, 知色不色. 名為照了, 始達妙音. 『西遊記』(제58회)

23) 我觀假悟空乃六耳獼猴也. 此猴若立一處, 能知千里外之事; 凡人說話, 亦能知之. 故此善聆音, 能察理, 知前後, 萬物皆明. 與真悟空同像同音者, 六耳獼猴也. 『西遊記』(제58회)

귀가 여섯이라는 말은 ‘나’와 ‘너’가 아닌 제3자라는 말이다. 앞서 수보리 존자가 손오공에게 도를 전할 때도 그랬고, 중국 승려 혜능이 오조선사에게 법을 전수받는 장면에서도 그러하였듯이, 스승이 제자의 깨달음을 확인하는 일은 제3자가 없는 곳에서, 깊은 밤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관하여 강경구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원래 선가에는 여섯 귀가 있으면 법을 전수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있다. 스승과 제자의 네 귀 외에 제3자의 여섯 번째 귀가 엿듣는 일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왜 그런가? 스승이 제자의 깨달음을 확인하는 현장은 의외로 단순하고 반복적이다. 지금 이 현장의 만사만물로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법과 하나로 만나 노닐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이라면 이것을 엿듣고 그 원리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원리를 짐작하고 이해하는 일은 당사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일은 재앙에 가깝다. 법이라고 불리는 객관적인 무엇이 따로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²⁴⁾

여섯 귀, 즉 제3자의 귀는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엿듣는 귀이다. 제3자가 깨달음에 대해 엿듣게 되면 그 원리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제3자는 경전도 알고 참선의 깨달음도 알고 우주와 개인이 존재하는 섭리도 알지만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앎이 아니라 표면적인 앎일 뿐이다. 엿들은 자의 깨달음은 진짜와 비슷해 보이지만, 깨달음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착각으로 이어지며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결국 손오공이 직접 가짜 손오공을 때려죽이면서 손오공은 다시 하나가 된다. 분별심이 사라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여 묘사한 부분이다.

3. 결론

현상학적 방법론에서 ‘장소의 정체성’이란 장소와 장소 경험의 주체인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장소의 고유한 특성이다. 장소들은 기억의 심연 속에 새겨져 있고, 각각의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진한 만족감을 준다.²⁵⁾ 다시 말해서 장소의

24) 강경구, 『평설 육조단경』, 세창출판사, 2020.05, p.48.

25) 박미성·최익서, 「에드워드 렐프의 장소 정체성에 관한 문화 경관론적 고찰 연구 -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환경의 사회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11권 6호, 2016, p.87.

정체성은 인물의 정체성 형성의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손오공 수행과정을 살펴보면 각 귀환마다 화과산이 가지는 의미에 변화가 있다.

태초의 화과산은 천지개벽과 함께 생겨난 세상의 근원이었다. 마음을 상징하는 손오공은 이 화과산에서 생겨나고 ‘나’를 인식하게 된다. 화과산은 ‘자아의 근원’이자 ‘세상의 근원’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뢰야식이라고 하고 프로이트와 융은 잠재의식이라고 설명한다. 즉 인간의 생명 탄생과 함께 ‘나’를 인식하게 해주는, 인간의 마음 [의식]의 가장 근원이 되는 곳이 바로 화과산이다.

구도를 위해 떠났다가 화과산으로 돌아온 손오공에게 있어서, 화과산은 이제 ‘자아’ 그 자체이다. 손오공은 화과산과 자신을 강하게 만듦으로써 대단한 자아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어 하였다. 두 차례 화과산을 떠나 있을 때마다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과산으로 돌아온다. 화과산에서 손오공은 다시 ‘자아’를 느끼고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믿으며 이에 집착하게 된다. 자아에 대한 집착, 즉 我執을 버리지 못한 손오공은 하늘과 저승을 소란스럽게 하다가 석가여래에 의해 五行山 아래에 깔리게 된다. 五行의 글자를 해석하면 다섯 걸음걸이이다. 우주의 다섯 걸음, 즉 우주의 변화 방향과 변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며 우리는 오행을 통해 만물이 無常함을 알 수 있다. 실재하는 ‘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는 영원한 실체가 아니다. ‘我執’은 나라고 인식하는 자아를 포함한, 모든 것이 무상함을 깨우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석가여래가 손오공을 오행산으로 눌러둔 것이다. 오행산에서의 500년을 통해 손오공은 ‘자아에 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

취경단에 합류하여 본격적으로 수행을 시작한 후 손오공은 ‘法’에 집착한다. 그리고 이는 화과산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4차, 5차 귀환에서의 화과산은 마치 손오공의 아뢰야식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空[法]’에 관한 집착으로 인해 취경단과 불화한 후 화과산으로 돌아오자, 화과산은 空만을 추구하는 세계가 되었다. 色을 상징하는 사냥꾼을 몰살하고 色色의 깃발을 하나[空, 法]의 깃발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에서 色을 허용하지 못하고 空만이 절대 法이라고 여기는 손오공의 의식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分別心’ 때문에 취경단과 불화하고 화과산에 돌아왔을 때의 화과산은 似而非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분별심을 통해 ‘法(진리, 깨우침)’만을 추구하려던 손오공에게 진짜와 꼭 같은 가짜의 세계가 나타나면서 분별에 집착하는 손오공의 의식 세계를 형상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화과산과 손오공의 상호관계 및 상징의미 고찰해 보았다. 화과산은 단지 소설 속 상상적 공간 배경으로만 설정된 것이 아니라 손오공의 수행과정과 긴

밀한 관계를 맺으며 손오공의 잠재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자아 인식, 자아 확대, 자아 집착에 이르기까지의 추상적인 과정을 손오공이 화과산으로 여러 차례 귀환하는 과정으로 이미지화하였으며 아집을 버리게 되는 과정은 천신들과의 전투, 오행산 아래에서의 수행하는 장면 등으로 형상화하여 묘사하였다. 손오공의 수행이 깊어진 후에는 법에 집착하는 그의 잠재의식을 화과산이라는 장소를 통해 투영해 내었다. 소설 『서유기』 작품이 가지는 고도의 상징성은 작품의 의도를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게 하고 이점은 작품의 우수성을 한층 더 드높인다고 할 수 있다. 화과산 이외의 『서유기』 속 장소도 이와 같은 분석과 고찰을 통해서 각각의 장소성 및 상징의미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작품의 주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구, 『서유기와 마음관찰 여행』, 신아사, 2017.02, p.17.
_____, 『평설 육조단경』, 세창출판사, 2020.6월, pp.47-48.
레오나르드 플로디노프, 『“새로운” 무의식: 정신분석에서 뇌과학으로』, 까치글방, 2013.04, p.28.
박미성·최익서, 『에드워드 렐프의 장소 정체성에 관한 문화 경관론적 고찰 연구 - 소설 미디어 네트워크 환경의 사회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11권 6호, p.87.
박문호, 『박문호 박사의 뇌 과학공부』, 김영사, 2017.12, p.325, p.440-441.
이상희, 『Interactive Architecture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1.02, p.12.
조지프 르두, 『시넵스와 자아』, 소소출판, 2005.10.
최영민,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쉽게 쓴 정신분석이론』, 학지사, 2011.09
『莊子』(第23篇 庚桑楚)
『三國志·諸葛亮·傳』
吳承恩, 『西遊記』, 上海古籍出版社, 1995.
林中治 講述, 『西遊記與唯識(一)生命的起源』, 大圓出版社, 1998.11.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西游记, 孙悟空, 花果山, 阿賴耶識, 无意识				
	영문	The Journey to the West, Sun Wukong, Placeness, Ālayavijnāna, Unconsciousness				
<div>A Study on the Placeness of Mountain of Flowers and Fruits</div> <div>Lee, Seo-Hyun</div> <p>Many places in the novel, <i>The Journey to the West</i> are embodied in the technique of advanced symbols and metaphors. Among them, 'Mountain of Flowers and Fruits' is where Sun Wu Kong was born and raised. When the subject of the place experience and the place interact with each other, 'the place identity' is formed. 'Mountain of Flowers and Fruits' is depicted in different appearances according to the birth of Sun Wukong and his Five times return. This study will figure out the development process of Sun Wukong and analyze the appearance and meaning of 'Mountain of Flowers and Fruits' that interacts with him. And through this process, I will be able to comprehend the symbolism and the place identity of 'Mountain of Flowers and Fruits'.</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이서현 / 李抒泫 / Lee, Seo-Hyun				
	소 속	靈山大學校 聖心教養大學				
	Em@il	gawaii701@gmail.com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0.11.20	심 사 일	2020.11.28	게재확정일	2020.12.14